

# 출판관련법들의 허세

李璟薰 본지 편집위원 · 普成社 대표

오늘의 출판계는 심상치 않게 중병을 앓고 있다. 한마디로 출판의 正道를 걷는 양식있는 출판사는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한다.

원고를 쓰고, 책을 내고 파는 일련의 공동체가 스스로의 自淨능력을 상실하고 역할분담을 포기했음을 뜻한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현행 출판문화권과 관련된 법의 존재가치가 과연 병들고 있는 출판계를 치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엔 어긋나 '출판업의 보호와 출판문화의 향상'을 앞에 내세웠으나, 이하 법조문엔 '목적'을 달성할 확실한 규정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음, 「저작권법」 역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법이지만, 저작권 사용량과 비례하여 그다과

가 매겨지는 재산권이고 그 주장이 親告罪라는 법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는 미미한 실정이라 한다. 「도서관법」은 또 어떤가. 1963년에 공포(작년에 개정)되었으나, 정보와 지식을 시민과 각급학교 학생에게 전달하여 문화자원을 확산시키는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 못해 사문화한 것이나 다름 없는 법이다. 도서관의 기능이 이와같은 때, 도서관정사업으로 출판문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상에 열거한 법들은 막말로 好事家들의 불필요한 일이라는 회의를 갖게 한다. 법은 현실적 모순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보강하는데 존재의 뜻이 있을 것이다. 최근 출판계 일각에서 추진중인 가칭 「출판문화보호법」에서는 현행 관련법들의 선언적 허세나 맹점을 두루 살펴서

우리의 현실인 '고질적 중병'을 치유할 처방을 법제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감히 제안한다면 문화 전반의 보호적 측면에서, 1974년에 제정된 창작의 댓가에 대한 과세를 비과세로 환원하고, 대만의 예와 같이 내국인 저작물을 파는 서점에 대한 전면 면세 등 창작풍토를 떨치게 하는 배려와 함께, 근원적으로 출판의 原副資材의 출고과약 등으로 총발행량의 認知를 가능케 하여 적정정가제로 유통상의 문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출판을 청탁한 반문화적 파괴행위,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널리 유행하고 있는 ①책을 길거리나 車속에서 파는 것 ②책을 다른 물건과 섞어서(덤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것 ③二重가격을 공공연히 광고하여 할인판매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명문화하여 책의 전통적 존엄성마저 실추케 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의 효율적 운영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가칭 「도서발전전문위원회」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 41호 / 1989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壹秀  
편집주간 — 李勝羽  
편집차장 — 康鐵柱  
기자 — 吳愛里 金芝媛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 — 尹貞子

포토디렉터 — 朱明德  
사진 — 全惠敬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兌源  
李義天 金姬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전산사식

출판저널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寧珉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谷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洸善 | 徐潤昊     |
| 成完慶 | 宋相庸 | 愼鍾廈 | 安秉永     |
| 安輝濤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康洙 | 李康淑 | 李璟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靉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映 | 鄭元植 | 鄭鐵弘     |
| 鄭丙圭 | 曹大鉉 | 趙玉羅 | 陳德奎     |
| 車河淳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 權鐘庫 | 韓相震 | 韓勝憲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강명길게 읽은 책, 값지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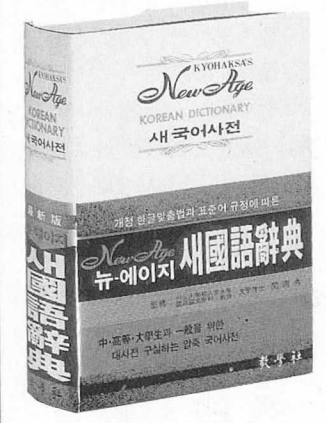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6월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3호(6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뉴에이지 새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1938년 10월 서울의 博文書館이 창간한 월간지 「博文」은 특정 분야의 글만을 게재했던 전문지였다. 이 잡지를 통해서 朴鍾和, 李孝石, 金晉燮 등이 좋은 글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잡지는 어떤 성격의 전문지인가.

1. 詩 전문지
2. 소설 전문지
3. 수필 전문지

문제2  
조선조 국문소설 중 하나로, 작자 및 연도미상인 「玉丹春傳」의 여주인공 玉丹春은 어떤 신분의 여성인가?

1. 妓生
2. 舞姬
3. 女子武人

문제3  
프랑스의 상징파시인으로 유명한 그는 미국 시인 에드거 앨런 포를 존경해서 반드시 미국쪽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악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남긴 이 시인은 누구인가?

1. 랭보
2. 말라르메
3. 보들레르

문제4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의 대표

작으로 1954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노인은 바다에서 며칠 동안이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생했나?

1. 74일간
2. 84일간
3. 94일간

제39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9호(4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97통, 이중 정답은 15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 주간지  
1918년 9월 張斗澈의 주재로 창간된 「泰西文藝新報」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간지 (1918, 9, 26~1919, 2, 17)였다. 발간 당시는 종합지 성격을

띠었으나, 그 후 문예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2. ①靑丘永言  
조선 영조때의 歌人 南坡 金天澤은 고려말부터 조선 영조때까지의 시조 1천여수를 수집하여 시조집 「靑丘永言」(1728)을 펴냈다.

3. ②달과 6펜스

4. ①줄 베르느  
줄 베르느는 「80일간의 세계일주」 「해저 2만리」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이며, 모리스 르블랑은 피도 루팡을 창조해낸 추리소설작가이다. H.G. 웰즈는 영국의 문명비평가이자 소설가로 「타임머신」 등 100여편의 공상과학소설을 남겼다.

당첨자  
김주향(서울 동작구 사당동 71-16)  
이상윤(인천시 남구 주안2동 475-9 3/2)  
김상천(충남 공주시범대학 한문교육과 4년)  
박미진(경남 밀양군 산외면 단산리 87-8)  
주기회(경남 함천군 울곡면 문림리 2구 127)